예수 무덤에서 대기발령

(요한복음 20:11~18)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 무덤에서 대기발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 무덤에서 대기발령'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직원의 일신상 또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대기발령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 소속은 유지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한편 믿음과 연관 지어서 오늘 제목을 '예수 무덤에서 대기발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무덤에 머무는 동안 삶의 직책이 잠정적으로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이고 또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무는 마음이 예수님의 무덤에 머무는 동안에는 잠시 멈추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인 묘지에 묻히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

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셨던 기간에 우리 마음도 동참하는 것이 삶의 모든 직무를 멈추는 대기발령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대기발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활의 의미와 능력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활이 가져다주는 감격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감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느낄 수 있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부활의 감격 또한 날마다 또 하루에 몇 번이라도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무덤에서 대기발령'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우리가 풍선을 입으로 불면 풍선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들어갑니다. 풍선이 가볍기는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풍선은 천천히 땅에 가라앉게 됩니다. 또 풍선에 물을 가득 넣어서 출렁거리게 만들 수도 있고, 헬륨 가스를 가득 넣어서 하늘로 날아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산화탄소가 가득 찬 풍선은 세상일이 잘 풀려서 마음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무리 가볍게 여겨져도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풍선은 땅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찬 풍선은 세상일이 전혀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이렇게 땅에 가라앉는 존재가 되도록 지음 받지 않았고, 헬륨가스로 가득 차서 하늘로 떠오르는 풍선과 같은 삶을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차기 전까지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뜻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녀를 마음에 담은 부모는 자녀가 형통하면 마음이 이산화탄소를 담은 풍선처럼 가볍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도 땅에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직무에 부적격한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가스처럼 하늘이 담겨야만 합니다. 하늘이 담긴 상태에서만 부모로써의 직무, 배우자로써의 직무, 직장인으로써의 직무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일이 잘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일이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세상이 들어찬 상태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삶의 모든 일도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세상으로 채운 상태에서 삶의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대기발령 상태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의 직무는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직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사상가나 철학자나 뛰어난 영성을 가진 종교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행복 하고 싶다면 진리대로 장사하면 됩니다. 부모의 직무를 잘하고 싶다면 자녀에게 진리대로 관계하면 됩니다. 진리는 누구나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의 움직임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이 길을 따라 장사를 하면 행복한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 길을 따라 마주할 때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계발서를 읽고 탐구해도 진리에서 벗어나있다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진리를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는 무엇을 생각하실 수도 없었으며 바라거나 뜻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예언대로 삼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무덤까지만 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때에 부활과 승천의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무덤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서도 구현되어야 하고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덤의 시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디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이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동참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배는 창에 찔리고 온 몸은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의 마음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기간이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에 의해 부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두드러진 특징으로써 평강이 나타납니다. 평강은 마음에 불만이 없고 만족하고 기쁜 상태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마주하는 사건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의 의미를 알고 또 이를 전제로 하여 부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활을 생활화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진짜 효능이 부활을 통해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디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부활을 제자들의 조작이라고까지 폄훼합니다. 불트만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의 비유로 부활사건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기에 이러한 가짜 주장에 휘말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헛된 논쟁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11절부터 살펴보았습니다만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의 아직 어두울 때는 곧 주일날 이른 새벽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일곱 귀신 들려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일곱 귀신까지 들렸으니 사회적으로 심한 멸시를 받았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이후로 따르며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공관복음서들 전체를 보면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기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다른 마리아 등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자인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의 움직임에 집중하여 부활의 의미를 극대화시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잡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의 여파로 인해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찌될지를 걱정하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나 무덤에 묻히실 때에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무덤에 마음을 보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마음을 보내었고 그 결과 두려워하며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마음을 보내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무덤에 마음을 보내는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말씀을 풀어주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야 자신들이 만난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마음을 부활과 승천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상태는 중요한 신앙적 기준이 됩니다. 본문을 간단히 말하자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 무덤 따라가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풍선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세상일이 잘 되어서 가벼운 풍선이 되던 세상일이 안 풀려서 무거운 풍선이 되던 결국 세상을 담게 되면 땅에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일이 잘 안 풀려서 부모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진짜 상한 이유는 자녀의 일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부모로써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회사에서 과장인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려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또한 회사원으로써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대기발령 상태를 명령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은 상태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온 세상일들을 빼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온 마음이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 주님은 본래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저주가 임하는 자리에 계셔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자녀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고 직장이라는 이

름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은 물론이고 내가 미워하는 대상까지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세상이 들어온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에게 있음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상태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전 설교에서 무대책 무반응 무방책의 속수무책이 상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기간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과정은 결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격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르셨던 기간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짐을 통해 나타납니다. 세상에 대해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 없는 대기발령의 상태를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무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후에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과 승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과정은 마음이 드려지는 정도에 따라 30분 만에 찾아올 수도 있고 하루나 이틀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무덤에서의 과정을 견디는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몸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이 임할 때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초대교인들이나 사도들이 받은 박해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과는 다릅니다. 이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으로 고난을 받았으나 마음에는 부활과 승천의 특징인 평강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의 고난을 참으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본문에서 생각해볼 점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두 천사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두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을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확장시키셨음을 뜻합니다. 천사는 하늘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두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앉아있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무덤은 곧 인간세상과 천국이 맞닿는 국경지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통과하

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하늘과 인간세상의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갈 때에, 또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갈 때에 국경의 관문을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와 세상을 가르는 국경의 관문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관장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관장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섭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정의를 장갑으로 삼아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무덤에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을 통해 인격적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그 직장의 영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재상의 아내가 일본으로 건너간 남편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며 현해탄을 바라보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그리움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오매불망 예수님만 그리워했다면 비슷한 사람만 보아도 예수님인줄 알고 깜짝 놀랐을 텐데, 마리아는 정작 부활화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건 바로 뒤의 27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21장 12~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공생애 때의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만져 확인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이 되셨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열지 않으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으로써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신 채 공생애 때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연속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이 전혀 다르신 분이 아니라 이전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이 되어 나타나셨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마주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전에 따르던 예수님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연속성을 확인시켜주시고자 상처 있는 육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완전히 절망하고 실의에 빠져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무덤까지 마음을 보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에 계시지만 또한 세상 밖에 존재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있었습니다. 몰라보게 하신 것은 두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속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는 말씀을 연관 지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도 좋다는 뜻이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발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만만치 않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는 마리아를 만류하신 이유는 마리아의 마음 상태에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실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경우와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마리아의 마음 상태는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

리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몰라보았지만 16절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소 매몰차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라도 이 세상에서 다시 공생애를 이어가시리라는 정도로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순히 죽었다가 육신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이나 이후에 여러 차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베다니에서 죽어서 매장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나인 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나중 일입니다만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제자인 다비다(도르가)를 살렸으며, 바울은 드로아에서 유두고 청년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다른 것은 이들의 부활은 육체로 살던 삶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공생애를 사시던 세상으로의 복귀를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는 있었지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진정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뿌리치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시고자 하셨기에 갈 길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도 좋다는 뜻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붙들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 세상 것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해도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하신 것과 같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뿌리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마음의 발을 사업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지 마시라고 붙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 예수님은 떨쳐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는 어떠한 기쁨이나 만족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도 처음부터 가르치고 배웠어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향하신 아버지께로 가야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묶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한다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서 더는 기쁨도 만족도 찾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가르쳐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뒤에 사십 일간 세상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온전히 하늘에 두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자 그 증거로 유무상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이 없어지자 가진 돈을 없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주머니의 담장은 없어지고 은행계좌에는 울타리가 사라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여러분의 돈은 없는 사람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자신 없고 두렵게 느껴진다면 아직 마음에 세상을 들여놓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상태에서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함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온전히 하늘을 향하게 된다면 반드시 마음이 변하는 때는 찾아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31절에서는 같은 의미에서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얻을 기쁨과 만족과 하늘에서 얻을 기쁨과 만족을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사십 일간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신 이유는 하늘과 땅이 공존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계시던 기간에 참여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또한 세상 밖에서 살아갑니다. 죽음과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

다. 그리고 무덤 속에 계시는 동안 세상을 떠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써 땅을 사심으로 부활의 세계와 부활 이전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상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죽었음을 인정함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삶을 대기발령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본래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나의 악을 대신 지시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악이란 곧 마음에 이 세상을 담은 상태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범죄들은 마음에 담긴 악의 열매일 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마음에 세상을 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면 악은 삶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마음에 담게 됨으로써 악은 확장됩니다. 이것을 멈추기 위해 마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삶을 대기발령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을 지속하는 동안 삶은 무방책 무반응의 속수무책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속하여 바라봄을 통해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면서 반응할 수도 없고 대책을 강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삶에서는 특별한 일이 생겨납니다. 세상을 담았을 때에 느끼던 분노와 걱정과 슬픔이 사라지고 이유 없는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평강은 곧 진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부터 부활과 승천을 따라 보좌 우편에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에서 주어진 직무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는 다른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일부러 이들의 눈을 가리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부활을 예언하셨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들어온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함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삶을 대기발령 상태로 직무정지를 유지합니다. 이때에 마음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을 가진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견디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반드시 부활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잠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장님께 이유 없이 책망을 듣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 때에 그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하는 것이고 십자가 바라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십자가는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떠올리려고 해도 마음에 와 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으로나마 예수님을 부르는 동안 내 마음에 생겨난 부장님에 대한 미움이 악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안 마음에 이겨낼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음에 뚜렷하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악함을 고백할 때에 십자가는 선명해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에 세상이 들어온 상태가 악입니다. 이러한 나의 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할 때에, 마음에서 십자가를 뚜렷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해 괴로울 때는 물론이고 세상으로 인해 기쁠 때에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세상으로 기뻐할 때에 신앙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악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에서의 기간을 견디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부활하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후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죽음과 무덤을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보낸다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깨어지지 않는 평강이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삶에 풍랑이 몰아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의 시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직무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리고 견디는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부활의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젠 어디서든 가능하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장소는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는 실천적 원리를 강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실천되어야 하는 장소는 삶의 한복판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활 속에서만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평강은 체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무덤에서 대기발령’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음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을 유지함으로써 예수님의 무덤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지만 평강이 지배하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확인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하되 주님의 무덤에 참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체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세상이 들어올 때마다 자발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